

‘친구 같은 서민금융’ 남구 새마을금고



지난 7월 28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남구 새마을금고협의회(부회장 이철화) 소속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은 잉크 낱새가 기본 줄게 풍기는 신간 아동도서 700여권(800만원 상당)을 새마을문고에 기증하고 지역희망공헌사업 지원금 2800만원을 남구청에 전달했다. 이 행사는 8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풀뿌리금융’ ‘서민금융’의 본령에 맞게 남구 지역 15개 새마을금고는 지역의 굵은 일이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는 아낌없이 지갑을 열고 있다. 금고 별로 사회환원기금을 조성해 장학금 지급, 불우이웃돕기, 경로당 생품 전달 등 이윤 축적 보다는 주민에게 되돌려주려 노력하고 있다.

전국의 새마을금고들이 이윤의 지역사회환원에 앞장서고 있지만 남구 지역 15개 새마을금고의 지역 사회 환원율은 유별나다는 평을 얻고 있다. 중앙회 차원에서 2015년에 야 비로소 MG지역희망나눔재단을 출범한 데 반해 남구 새마을금고들은 이보다 5년 앞선 2010년 8월 체계적인 지역공헌활동을 위해 남구청과 정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언급한 지역희망공헌사업이다.

△사람의 책 전달 △저소득 아동 책상 지원사업 △저소득층 및 결혼이민자 자녀 배달갑자 및 생활과학교실 등 다양한 지역밀착형 사업에 매년 2800만원~3000만원을 8년째 조건없이 배풀고 있다.

남구 15개 새마을금고협의회 이철화 부회장(대연6동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남구 새마을금고들은 공공의 가치가 기본이 되는 따뜻한 금융을 지향하고 있다”며 “신용·공제사업 등 경제적 기능 외에 지역공헌 등 사회적 기능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라고 말했다.

달라진 새마을금고 위상

새마을금고는 항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남구 15개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지난 7월 28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2017 지역희망공헌사업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지역희망공헌사업에 8년째 2억원 넘게 후원

관내 15곳 ‘풀뿌리 영업’ 총자산 1조3011억

비과세금융상품 등 저금리시대 ‘세테크’ 인기

1963년 경남 지역에 설립된 5개 금고에서 출발했다. 금융 문턱을 낮추고 신뢰와 헌신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파고든 덕에 가파른 성장을 거듭해 반세기만에 명실상부 대한민국 금융리더로 자리잡았다.

달라진 새마을금고의 위상은 외형적 규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84년 7월 자산 1조원 돌파를 시작으로 1992년 3월 10조원, 2005년 9월 50조원에 이어 2012년 마침내 자산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현재 전국 새마을금고는 2016년 12월 기준으로 1321곳에 총자산 142조원, 거래자 숫자만 2000만명에 달한다. 남구에는 현재 15개의 새마을금고가 영업을 하고 있고 총자산 규모가 1조3011억원에 이른다.

새마을금고의 비약적 성장은 비과세금융 상품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면 최대 3000만원까지 예·적금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14%)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1000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에도 세금을 때

■ 남구 새마을금고 현황

금고명	이사장	주 소	설립연혁	자산(2017년 6월 기준)
용주새마을금고 (옛 대연1, 3동)	정경원	남구 수영로266번길 31 (대연동)	1986. 12. 11.	1349억7000만원
대연새마을금고	차순근	남구 유엔로 120번길 26(대연동)	1978. 12. 19.	1006억2700만원
대연중앙새마을금고 (옛 대연5동)	이정영	남구 못골로 77(대연동)	1979. 11. 13.	902억8200만원
대연6동새마을금고	이철화	남구 못골로 28(대연동)	1981. 8. 10.	749억2800만원
용호새마을금고	최대복	남구 동명로146번길 6(용호동)	1980. 8. 19.	886억4900만원
남부새마을금고 (옛 신용동)	정원욱	남구 동명로152번길 104(용호동)	1978. 3. 20.	1663억100만원
용당동새마을금고	최보식	남구 신선로 329(용당동)	1976. 8. 28.	400억3100만원
남부산새마을금고 (옛 감만동)	김경래	남구 우암로 69(감만동)	1976. 8. 28.	717억9200만원
감만동새마을금고 (옛 감만2동)	박형기	남구 석포로 29(감만동)	1980. 2. 25.	654억5500만원
우암동새마을금고	장재홍	남구 유엔로 1-1(우암동)	1979. 4. 18.	775억9800만원
남부중앙새마을금고 (옛 우암2동)	황병열	부산 남구 우암로 240 (우암동)	1976. 8. 31.	669억4900만원
문현새마을금고 (옛 문현1동)	정후권	남구 고동길로 64(문현동)	1975. 8. 22.	1100억7100만원
금융단지새마을금고 (옛 문현동)	송순관	남구 전포대로 88(문현동)	1979. 12. 3.	915억6500만원
문현3동새마을금고	김성준	남구 수영로389번길 6(문현동)	1979. 5. 28.	874억4000만원
문현4동새마을금고	이은봉	남구 수영로 18-8 1층(문현동)	1976. 9. 16.	345억1400만원

지 않아 저금리시대에 새마을금고가 최고인 ‘세테크’로 부상했다.

제2금융으로 분류되는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으로 일종의 협동조합이다. 이 때문에 고객은 금융사고에 대한 막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일반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

각각의 새마을금고에 대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특히 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예치해 금고의 영업정지, 파산 등이 발생할 경우 이 준비금에서 우선 지급하기 때문에 금융사고 걱정은 전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용호 골목시장 인근 재활용품 알뜰매장 운영

“집안에 잠든 보물 기증해주세요”

각종 생활용품 1000~5000원 판매

수익금은 어르신일자리 창출에 사용



용호동에 재활용품판매장(알뜰매장)이 최근 개장했다. 용호골목시장 인근에 문을 연 알뜰매장(남구 동명로 158번길 77)은 의류, 신발, 도서부터 그릇·어린이장난감·가방 등 다양한 잡화를 1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판매하고 수입금은 지역어르신들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용된다.

물품은 아름다운가게 부산본부 후원으로 매달 한차례 의류, 신발, 도서, 생활잡화 등을 기증받는다. 이밖에 남구노인복지관과 동명대학교에 수거함을 설치해 재활용품을 수거해 판매한다.

매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12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휴일에는 문

을 열지 않는다. 부산남구시니어클럽에서 선발된 어르신 4명이 2인1조로 짝을 이루어 3시간씩 번갈아 매장을 관리한다.

한편 알뜰매장은 일반인에게서도 물품 기부를 받고 있다. 매장으로 직접 물품을 가져와도 되고 부피가 클 경우 방문 수거도 가능하다. 기증문의 : 부산남구시니어클럽 ☎623-6090~1



김정휘

‘위대한 유산’



남구 거주 할머니 8억대 전 재산 익명 기부하고 숨져

‘사망 후 기부’ 부산공동모금회 설립 이래 첫 사례

남구에서 혼자 살던 어느 할머니(69)가 세상을 뜨기 직전에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역대 부동산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전란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남구에 사는 김 모 할머니의 전화였다. 평생 사는 돈으로 마련한 상가가 있는데 자신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이 상가 건물을 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화로 기부의를 밝힌 김 할머니는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모금회는 고인의 뜻에 따라 부동산 매각 절차를 밟아 지난 4월 8억 5000만원에 상가 건물을 매각했고 부산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액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할머니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뜻도 남겨 모금회는 자세한 내용이나 사진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김 할머니

는 젊은 시절 일본으로 건너가 역척스럽게 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회귀병에 걸려 한국으로 건너와 남구에서 외롭게 생활했다고 한다.

1998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 이후 전 재산인 부동산을 모두 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유산기부를 계획하고 기부사약을 한 경우는 있으나, 실제로 기부자가 사망해 유언을 집행한 것도 첫 사례다.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쌀을 후원하는 (주)플러스시스템의 김태연 대표는 감만동에 서 나고 자라 감만동과 지역주민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주)플러스시스템은 2013년 설립된 온라인 화환·화예 유통 시스템 기업으로 창업 3년 만인 지난해 350억원대의 매출을 올렸다.

감만복지관 이색 쌀 기부 프로젝트 ‘대박’

롯데 강민호 선수 홈런 칠 때마다 쌀100kg 기부… 올해만 1.7톤 후원

감만종합사회복지관의 신개념 기부 프로젝트 ‘홈런에서 인심난다’가 갈수록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홈런에서 인심난다’는 롯데지이언츠 강민호 선수가 KBO 리그 정규 시즌에서 홈런 한 개를 칠 때마다 IT화해 플랫폼 기업인 (주)플러스시스템이 100kg의 쌀을 감만복지관에 후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2016년 3월부터 시작했는데 강 선수는 지난해 20개의 홈런을 쳐 쌀 2톤을 기부했다. 올해는 7월말 기준으로 벌써 17개 홈런을 기록해 1.7톤의 쌀을 전달 받았다. 복지관은 기부 받은 쌀을 지역 주민과 지역아동센터 등지에 후원하고 있다.

이색 쌀 기부 사업은 감만복지관에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감만동 출신의 젊은 사업가에서 비롯됐다. 강 선수는 2015년 결혼식 축하금으로 받은 쌀 화환을 감만복지관에 전달하면서 복지관과 인연을 가졌는데 여기에는 감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예비 장모님’의 소개 덕분이었다.

이 사업은 2016년 3월부터 시작했는데 강 선수는 지난해 20개의 홈런을 쳐 쌀 2톤을 기부했다. 올해는 7월말 기준으로 벌써 17개 홈런을 기록해 1.7톤의 쌀을 전달 받았다. 복지관은 기부 받은 쌀을 지역 주민과 지역아동센터 등지에 후원하고 있다.

이색 쌀 기부 사업은 감만복지관에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감만동 출신의 젊은 사업가에서 비롯됐다. 강 선수는 2015년 결혼식 축하금으로 받은 쌀 화환을 감만복지관에 전달하면서 복지관과 인연을 가졌는데 여기에는 감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예비 장모님’의 소개 덕분이었다.

필리핀 출신 이하은씨 다문화가정상 수상

모범적인 다문화가정을 발굴해 격려하는 제9회 다문화가정대상에 남구 문현동에 사는 이하은(필리핀 출신)씨가 희망가정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18일 서울 KEB하나은행 명동본점에서 열렸다.

필리핀 민다나오 출신인 이 씨는 지난 2005년 지금의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한국으로 왔다. 세 아이의 엄마인 이 씨는 몸이 불편한 남편을 돌보며 힘든 한국 생활에도 화목한 가정을 지키고 자녀 양육에 힘쓰는 등 주위의 모범이 되고 있다. 지난해 남구청에서 개최한 결혼이민여성 말하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 씨는 “초등학교



생인 아이들이 영어 성경책으로 공부를 하는 등 학업에서도 뛰어나다”며 “아이들에게 필리핀 문화도 알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 모집·안내

9월 1일 남구 구민나눔장터

남구 구민 나눔장터가 오는 9월 1일(금) 오전 10시~오후 4시(우천시 취소) 남구청 광장에서 열린다. 8월 28일 오전 9시부터(전화, 방문) 선착순 신청 마감하고 행사 당일 신분증 확인(남구주민 및 본인 확인) 후 자리를 추천, 배치한다. 부대행사로 폐건전지 및 종이배 교환행사, 음식물쓰레기 홍보 행사, 대형폐기전 배출 방법 안내행사 등이 열린다. ☎607-4451

애니메이션 ‘어린이왕자’ 상영

남구도서관은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 8월 여름방학특선으로 애니메이션 ‘어린이왕자(감독 마크 오스본)’를 8월 30일(수) 오후 7시부터 도서관 2층 시청각실에서 무료 상영한다. ☎607-6575

전통 성년례 참가자 모집

10월 21일(토) 오전 11시 평화공원 특설 무대에 마련되는 ‘전통 성년례’ 재현 행사 참가자를 모집한다. 만 19세~만 24세 남구 거주자 또는 남구 소재 대학의 재학생(외국인도 가능), 남구 소재 군부대 장병 등이 참여할 수 있고 8월 28일~9월 22일까지 선착순 마감하며 단체 신청도 받는다(남녀 각각 20명). 전통 성년례 행사는 제21회 용호도평화축제와 연계해 열린다. 남구 평생교육과 전화(☎607-4831) 또는 이메일(keyou92@korea.kr) 신청

청소년 베틀시장 참가자 모집

물건값을 직접 정하고 자유롭게 판매해 합리적 자원 순환 개념과 경제관념을 기르는 청소년 나눔 베틀시장 참가자를 모집한다. 행사는 10월 21일(토) 13:00~16:00 평화공원 옆 장미원에서 열린다. 남구 거주 또는 관내 초, 중, 고 재학 중인 청소년 개인 및 단체가 대상이며 초등학교생은 보호자 자격으로 학부모 동반 가능하다.

가격은 판매자가 직접 정하고 판매수익금의 20%는 불우이웃 성금으로 기부해야 한다. 수익금 전액 기부자에 한해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된다(1365사이트 가입필수). 이 행사는 제21회 용호도평화축제와 연계해 열린다. 남구 평생교육과 전화(☎607-4831) 또는 팩스(☎607-4519). 팩스 신청 후 반드시 전화 확인.

남구자원봉사센터 이천

남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황영식)가 지난 2월 수영로39번길 35(문현동)로 이전 개소했다. 자원봉사 참여는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가입을 통해 쉽게 봉사 참여하고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군함도’ 사진전

영화 ‘군함도’ 개봉으로 새롭게 주목받는 일본 군함도(하시마섬)를 다룬 사진전 사회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8월 14일~11월 30일까지 6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재갑 사진작가의 ‘군함도-미쓰비시 군간지함’은 작가가 2008년부터 군함도 내부에 들어가 촬영한 사진 40여점을 전시한다. 사진물 외에도 조선인 속살을 재현한 조형물, 영상 등도 선보인다.

직장인 대상 요가교실 개설

남구국민체육센터는 9월 1일부터 ‘직장인을 위한 요가교실’을 추가 개설 운영한다. 주 3회(월·수·금) 저녁 9시에 열리며 수강료는 4만원. 8월 21일부터 센터 방문 혹은 인터넷(www.namgusports.go.kr)으로 선착순 접수 받는다. ☎607-4934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

용호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동섭)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문화체합에 소외되기 쉬운 지역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한여름 밤의 작은음악회(8월 25일 오후 6시)’를 개최한다. 웃음박사 조상영씨가 사회를 맡는다.

지방연소교실 운영

백운포 남구체력인증센터는 국민체력100사업 일환으로 ‘지방연소 교실(Dynamic Fat Burn)’을 9월 5일~11월 2일(화·수·목 13:00~13:50) 두 달간 운영한다. 수강료는 조건부 무료(등록시 6만원 수업과정 수료하면 전액 환불). 8월 21일~9월 4일 선착순 접수. ☎626-8215~6

9월 20일 우암동 에코데이

마을 주민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인 우암동 양달마을 에코데이가 오는 9월 20일(수) 우암 양달마을 행복센터에서 열린다. 부산 전역의 행복마을 동아리팀의 우수상품을 소개·전시·판매하고 남구평생학습빌리지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또 우암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들의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암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베틀시장과 주민이 직접 만드는 먹거리장터도 운영된다. ☎607-6866

평화의길 탐방 참여자 모집

남구는 ‘가족과 함께하는 평화의 길 탐방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행사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유엔평화기념관 등 남구 일원의 평화 관련 시설을 탐방한다. 무료이며 참여 신청은 남구청 평생교육과(☎607-4515)로 하면 된다.

감만할매합창단 단원 모집

60대 이상 할머니로 구성된 마을합창단인 감만할매합창단에서 올해 연말까지 활동할 2017년도 하반기 단원을 모집한다. 부산에 사는 60세 이상 여성으로 부산문화재단 감만창의문화촌 5층에서 매주 수요일(오후 2시~4시)에서 정기연습을 가진다. 전화로 신청 ☎745-7248.

2017 여성 해피드라이버 모집

여성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위한 지식과 교통사고방지 능력, 차량 정비·점검 등을 알려주는 2017 여성 Happy driver 교실참여자들을 모집한다. 교육은 10월 19일~11월 6일(매주 월·목 10:30~12:00 6회)이며 교육장소는 남구청 5층 대회의실과 현장 방문 등으로 이뤄진다. 무료이며 신청은 9월 1~22일 전화,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문의 ☎607-4552

부산고용복지지원센터

일자리와 복지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 취업알선,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직업훈련

복지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복지종합상담

서민금융 신용회복지원, 미소금융·햇살론,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부산고용복지지원센터 지하철 1호선 시청역 1번출구 T. 860-1919